| 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| 보도 일시 | 2022. 12. 22.(목) 11:00<br>< 12.22.(목) 석간 > | 배포 일시 | 2022. 12. 22.(목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력혁신정책관<br>전력산업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강감찬 (044-203-388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조민웅 (044-203-3887) |

# 산업부 2차관,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

**-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 기록 경신 전망 -**

**-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설비관리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 당부 -**

□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.22일(목) 서울 성동변전소를 방문하여,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.

**《 현장 점검 개요 》**

- (일시/장소) '22. 12. 22.(목) 11:00 / 서울 성동변전소
- (참 석 자) 산업부 2차관, 전력계통혁신과장
  한전 서울본부장·서울전력관리처장·성동전력지사장 등
- (주요내용) 전력수급 현장 운영·관리 상황 점검, 현장 근무자 격려

□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○ 이번주에는 역대 겨울철 최대수요 기록을 2차례나 경신했으며, 녹록치 않은 전력수급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겨울철(12~2월) 최대전력 수요 기록 : ('21.12.27일) 90.7GW → ('22.12.19일) 91.7GW → ('22.12.21일) 92.7GW → ('22.12.22일) 94.5GW(전망)

< **최근 전력수급 실적** (단위: MW, %) >

| 구 분 | '21년 | '22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12.27(월) | 12.19(월) | 12.20(화) | 12.21(수) |
| 공급능력 | 103,554 | 103,828 | 104,369 | 103,274 |
| 전력수요 | 90,708 | 91,710 | 90,571 | 92,698 |
| 예비전력 | 12,846 | 12,118 | 13,798 | 10,576 |
| (예비율) | (14.2) | (13.2) | (15.2) | (11.4) |

○ **이날**(12.22일, 목)은 **전날보다 추운 날씨**로 **전력수요가 94.5GGW까지 높아지면서, 역대 겨울철·여름철**을 **통틀어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금년 여름**(7.7일) 기록인 **93.0GW까지 넘어설 것**으로 **예상**된다.

* 실제 전력수요 기록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집계 후 별도 발표 예정

○ 이는 「**동계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**」(11.30일)**에서 전망한** 최대전력수요 **94GW를 상회**하는 것으로, 전국적인 **적설(積雪)에 따라 당초 전망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저조한 영향**이다.

□ 다만, 최근 준공된 **신한울 1호기**와 5년만에 가동을 재개한 **한빛 4호기, 정비를 마친 한빛#1 및 신고리#2 등 원전들이 적시에 투입되면서, 90GW 이상을 웃도는 전력수요**에도 **예비력은 10GW 이상을 유지**하고 있다.

* 신한울#1, 한빛#1·4, 신고리#2 未진입했을 경우, 예비력과 예비율은 각각 2.7GW, 3%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

□ **박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**은 **계속해서 높은 전력수요**가 **발생하는 상황**에서, **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**인 **성동변전소 운영·관리 상황**을 **점검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○ 박 차관은 "**철저한 수급관리**를 **통해 기록적인 전력수요에도 안정적 예비력 수준**을 **유지**하고 있지만, **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**되고 있다"고 언급하며,

○ "전력 유관기관은 변전소를 비롯한 **전력설비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 대응태세**를 **유지**할 것"을 **당부**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